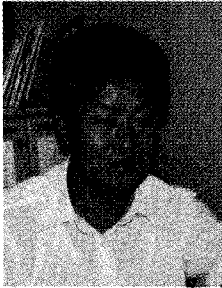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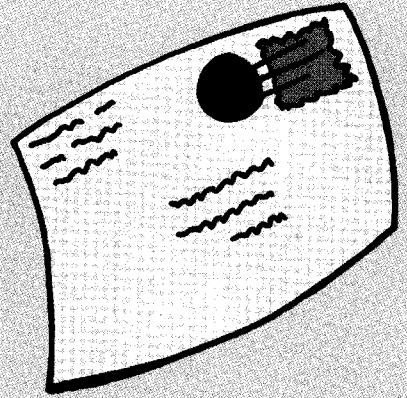


#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



곽병찬  
한겨레신문 문화부장

**11** 월이다. 한해를 정리하는 달이다.

가을걷이는 모두 끝났다. 쌀 콩 따위의 곡식은 한가위를 전후해 이미 거둬들였다. 잎사귀 모두 떨어뜨리고, 결실만 주렁주렁 매달려 서리 내리길 기다리던 감들도 이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. 한 그루에 서너 개씩 까치밥으로나 남았다. 찬 서리 맞고도 기품 잃지 않는다는 국화마저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. 추곡수매도 이때 있어 가난한 농부들도 목돈을 만질 수 있다.

그렇다면 이쯤에선 마음 후듯하고 얼굴 평안한 이들이 많아져야 마땅할 것이다.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은 실제로 그렇다.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이 달에 있다. 요일로 치면 금요일 오후쯤 되니, 한 주일 열심히 일한 이들이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이다.

한 시름 놓고 즐길 법도 하다. 그런데 장안엔 한숨 소리만 더 커졌다. 왜 그럴까. 물론 시험 때문이다. 수학능력시험 등 온갖 시험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게 11월이다. 수능시험은 비록 60여만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지만, 가까운 일가친척 가운데 수험생이 없는 가정이란 없다. 중학생의 경우 특수목적고 진학시험이 있다. 대학졸업생들에겐 취직시험이 버티고 있다. 모든 시험이란 게 그렇듯이, 잘 치룬 사람보다 못 치룬 사람이 서너배 많은 법이다. 기대 이상으로 잘 봤다는 사람은 열명에 한명이나 될까. 그들은 짧게는 3~4년 길게는 10여년씩 준비해왔다.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것을 평가받는 것이니, 그 결과가 '기대 이하' 일 경우 겪게 될 슬픔과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.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노심초사해온 부모의 고통도 마찬가지다.